



학습목표

1.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과정임을 이해한다.
2. 자신의 삶 속에서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한다.

준비물

- ‘모차르트(Mozart)의 레퀴엠(Requiem) 중 눈물과 슬픔의 날(Lacrimosa)’ 음악(디다케 홈페이지 ‘<http://didache.eduseoul.or.kr>→자료방→디다케 자료방’ 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오디오 또는 음악 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 단어 카드(같은 단어를 2~3개씩 만듭니다.)
- 포스트잇(大)-(2가지 색으로 아이들 숫자의 2배만큼 준비합니다.), 전지 2장, 수성 사인펜 혹은 수성 매직펜 등

들어가는 말(교안을 사용하는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 본 교안은 중등부 · 고등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눈물과 슬픔의 날(Lacrimosa)’ 과 함께 베르디의 레퀴엠도 디다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두 곡을 비교하며 감상해 봅니다.

시작
기도 자유 기도

- 도입**
1. '죽음'에 대한 나의 느낌 알아보기
 2. '모차르트(Mozart)의 레퀴엠(Requiem) 중 눈물과 슬픔의 날(Lacrimosa)' 감상하기
 3. 위령 성월의 의미 이해하기

“자, 잠시 눈을 감아 볼까요? ‘죽음’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청소년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잠시 줍니다.)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드나요?(잠시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눈을 뜨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는 단어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한 단어 카드인데요, 조금 전 죽음을 생각하며 느꼈던 감정과 가장 유사한 것을 단어 카드에서 1~2장 골라 보세요.(카드를 고를 시간을 줍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왜 그 카드를 선택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청소년들이 돌아가면서 간단히 이야기하게 합니다. 이때 자칫 분위기가 들뜨지 않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단어 카드 예시

슬프다	후련하다	답답하다	고귀하다
우울하다	기쁘다	엄숙하다	무섭다
속상하다	울고 싶다	아쉽다	외롭다
두렵다	오싹하다	별 생각 없다	편안하다
그립다	잊고 싶다	행복하다	설레다

“여러분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어두운 느낌의 감정들이 더 많은 듯하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두렵고 거부하고 싶은 것이예요. 아마도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겠지요.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 특히 연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리는 달입니다. 우리는 위령 성월이 되면 죽음에 대해 한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11월을 위령 성월로 정하고, 살아 있는 우리들이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는 음악을 들으려 합니다. ‘모차르트’의 ‘레퀴엠’이라는 곡입니다. 레퀴엠은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곡으로, 여러 음악가들의 많은 작품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모차르트의 레퀴엠 중 한 부분을 들어 보겠습니다.”

작업1

‘모차르트(Mozart)의 레퀴엠(Requiem) 중 눈물과 슬픔의 날(Lacrimosa)’ 감상하기(상황에 따라 다른 음악가의 레퀴엠을 함께 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선생님들께

오늘 교리는 노래를 감상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음악을 잘 들을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효과적인 음악 감상을 위해 곡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감상 전·후 간단히 전달해 주세요.(교안 뒤에 곡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감상 후에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자, 느낌이 어떤가요?(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차르트는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곧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더 이상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구원의 길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전개

1. 잘 사는 방법과 죽음을 잘 맞이하는 방법 알아보기
2.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작업2

웰빙(well-being, 잘 사는 것)과 웰다잉(well-dying,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을 생각해 보며, 거룩한 죽음이란 어떤 죽음일지 함께 나누어 본다.

“잘 사는 것, 즉 웰빙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나요? 영양가 높은 음식이나 유기농 음식을 먹고, 공기 좋은 곳에서 전원생활을 하며, 황토방에서 잠을 자는 것 등이 생각나나요? 이런 것들을 웰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찌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잘 사는 방법과, 죽음을 잘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 각자 생각해 보고, 나누어 준 종이에 적어 보세요.”

(1) 교리실 벽에 전지 2장을 붙이고, 한 장에는 웰빙(well-being), 또 한 장에는 웰다잉(well-dying)이라고 제목을 적는다.

예)

well-being	well-dying

- (2) 청소년들에게 두 가지 색의 포스트잇 3장씩과 수성 사인펜(혹은 수성 매직펜)을 나누어 준다.
- (3) 웰빙과 웰다잉에 대해 생각해 보고, 웰빙과 웰다잉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포스트잇 하나에 한 가지씩 2~3개 적는다.(웰빙과 웰다잉에 해당하는 포스트잇 색을 미리 정해 줍니다. 그리고 써넣은 글자를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게 되도록 크게 쓰게 합니다. 시간은 대략 5분 정도 줍니다.)
- (4) 글자를 적은 포스트잇을 전지에 붙인다.
- (5) 전지에 적힌 내용을 읽으며 서로의 의견을 알아본다.

“자, 여러분이 적은 내용을 한번 볼까요?(다 함께 전지에 적힌 내용을 읽어 보면서 서로의 생각을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적은 내용을 보니 웰빙과 웰다잉의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네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잘 사는 방법이 바로 죽음을 잘 준비하는 방법이고, 죽음을 잘 준비하는 방법이 곧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늘 깨어 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웰빙이요, 웰다잉입니다.”

작업3

성경 속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 (1) 마르코 6, 17-29을 각자 읽는다.
- (2) 질문지를 나누어 받는다.(질문지를 나누어 주는 대신 교사가 질문을 하나씩 읽어 주어도 됩니다.)
- (3) 질문에 대한 답을 간략히 작성한다.(시간을 너무 길게 끌지 않게 합니다.)
- (4) 교사는 청소년들이 작성한 내용을 살펴본 뒤 모두의 생각을 정리해 준다.(청소년들이 스스로 발표할 수 있게 해도 좋습니다.)

질문지

질문1) 세례자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질문2) 내가 세례자 요한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질문3)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화 와 실천

(※수업 정리 및 생활 적용)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 25-26).

“우리는 앞서 웰빙과 웰다잉의 방법과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통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교회는 ‘죽음’에 대해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수난 당하고 죽으셨지만, 당신의 부활로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비해 이 은총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큰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침 기도

위령 성월 기도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열심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들은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디다케 홈페이지 ‘<http://didache.eduseoul.or.kr>→자료방→디다케 자료방’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자료)

레퀴엠이란 죽은 자를 위한 가톨릭 미사곡을 말합니다. 서양의 음악 역사상 다양한 레퀴엠이 작곡되었지만 모차르트의 레퀴엠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종교음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의 레퀴엠은 원래 미완성 작품입니다. 모차르트가 레퀴엠을 다 작곡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차르트 레퀴엠은 모차르트의 제자인 '아이블러'와 '취스마이어'가 마무리한 것입니다. 위령 미사곡인 모차르트의 레퀴엠은 d단조로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크게 7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INTROIT (입당송)
2. KYRIE (자비송)
3. SEQUENTIA (부속가)
 - 1) Dies irae (진노의 날)
 - 2) Tuba mirum (놀라운 나팔소리)
 - 3) Rex tremendae (무서운 대왕)
 - 4) Recordare (자비로우신 주님 기억해 주소서)
 - 5) Confutatis (저주 받은 이를 부끄럽게)
 - 6) Lacrimosa (눈물과 슬픔의 날)

Lacrimosa dies illa	눈물로 가득한 그날이여
Qua resurget ex favilla	티끌에서 부활하는 그날이여
Judicandus homo reus	죄인에게 심판이 있으리니
Huic ergo parce Deus	하느님, 제발 그들을 용서하소서
Pie Jesu Domine	자비로우신 주 예수여
Dona eis requiem	그들에게 안식을 주소서
Amen!	아멘!

4. OFFERTORIUM (예물 기도)
5. SANCTUS (거룩하시도다)
6. BENEDICTUS (찬미 받으소서)
7. AGNUS DEI (하느님의 어린 양)
8. COMMUNIO (영성체송)

박현우. 올리안나
미술치료사, 서울대학교 창동 성당 중고등부, 서울대학교 본당 중고등학생 사목부(교육부 및 교시연합회 회장단)에서 8여 년 간 교사로 활동하였다. 지난 1997년부터 생활성가팀 '사랑의 날개'를 거쳐 현재 '가톨릭 생활성가 공동체 The Present' 찬양 사도로 활동 중이다.